

전주시,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탄력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 2년간 총 50여억원 투입 100개 이상 창업기업 지원

전주시가 중소기업의 수출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면서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큰 힘을 받게 됐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은 올해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수행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에 사업과 자금과 사업모델(BM)역신,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연계, 역량강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향후 2년간 총 50여억원을 투입해 100개 이상의 창업기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의원 역량 강화 전주시의회는 13일 공직선거법을 지키고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조기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의원과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선거법 비로 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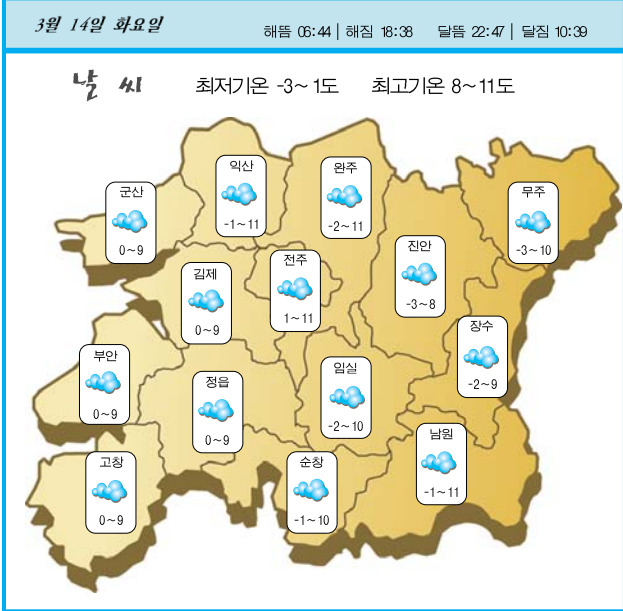
이를 위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오는 4월까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창업지원 진단조작을 설치, 전북탄소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기관 당 50개 과제 내외)과 함께 유통지원, 글로벌 수출지원, 제품개선지원, IPO촉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이 매출증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증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창업초기 도약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기업역량강화와 해외시장진입 등이 기대된다"라며 "우수 창업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해 투자연계와 국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탄소산업에 걸인차 역할을 해나가는 등 전국에서 최우수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농어촌 중학교 대학 찾아 '1박 2일 진로캠프'

농어촌지역 중학생들이 서울대 등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진로캠프를 갖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우수 대학·도서벽지 연계 1학기 진로 탐색캠프 프로그램에 도내 성내중, 하서중 진성중학교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탐색캠프에는 서울대, 경희대, 서강대, 포항공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대학이 준비한 1박 2일 간의 다채로운 진로탐색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경희대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정을 준비했고 서울대, 포항공대 등은 이공계 체험을, 한국외대는 외교관 체험과 대사관 방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학이 방문 학생들을 위해 차량을 직접 보낸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군산 대성중, 섬진중, 고창남중 등 14개 학교에서 펼쳐진다. 은행원으로 구성된 금융멘토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 은행업무와 금융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또 신한은행이 추진하는 뱅버드(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도 도내 중학교를 방문할 계획이다.

뱅버드는 대형 버스 안에 금융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해은기자

전주대, 나트륨을 줄인 건강한 한식 요리경연 대회 30일 개최

전주대학교는 13일 나트륨을 줄인 건강한 한식 요리경연 대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리경연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식품성 염기 증감 소재 개발 및 저염 가공식품의 제품화' 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것이며 매일식품과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전북권 대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매일식품이 생산하는 나트륨 저감화 소재 및 저염 간장을 활용해 구이와 찜 조리류 중 1종의 레시피를 개발해 요리를 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2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전주대 홈페이지나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FIFA U-20 월드컵' 응원 서포터즈 모집

4월 7일까지 2000명

전주시가 FIFA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기간 전주를 찾는 외국 선수단을 응원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FIFA U-20 월드컵 응원 서포터즈 2000명을 모집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포터즈를 구성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24개국 참가국 중 전주에서 경기를 치르는 외국선수단에 대해 환영 및 환송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기 당일에는 응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응원 서포터즈에는 축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은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kkcaebot@korea.kr) 또는 구청·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개인봉사참여란'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응원 서포터즈 지원자는 응원용품이 지원되며, 결연 참가국 경기 관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실적이 인정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전북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연차평가 '우수'

2억 원 사업비 확보 6차년도 사업 착수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포럼(KIAT)의 2016년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4B 엔지니어링을 통한 공학교육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2012년부터 10년 동안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는 이번 우수 평가로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6차년도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센터는 지난 5차년도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ITB, 말레이시아 UKM 등 해외대학 학생들과 함께 팀을 꾸려 활동하는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과 '실리콘밸리 창업연수' 등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센터는 지난해 공학교육페스티벌에서 포스퍼테이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한국산업기술포럼장상을 수상했고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또 다른 학생팀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도 거뒀다.

한편 전북대는 공학교육혁신사업을 통해 기초 및 실무교육 혁신인프라 구축 사업과 융합창의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기술 사업화 모델 개발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